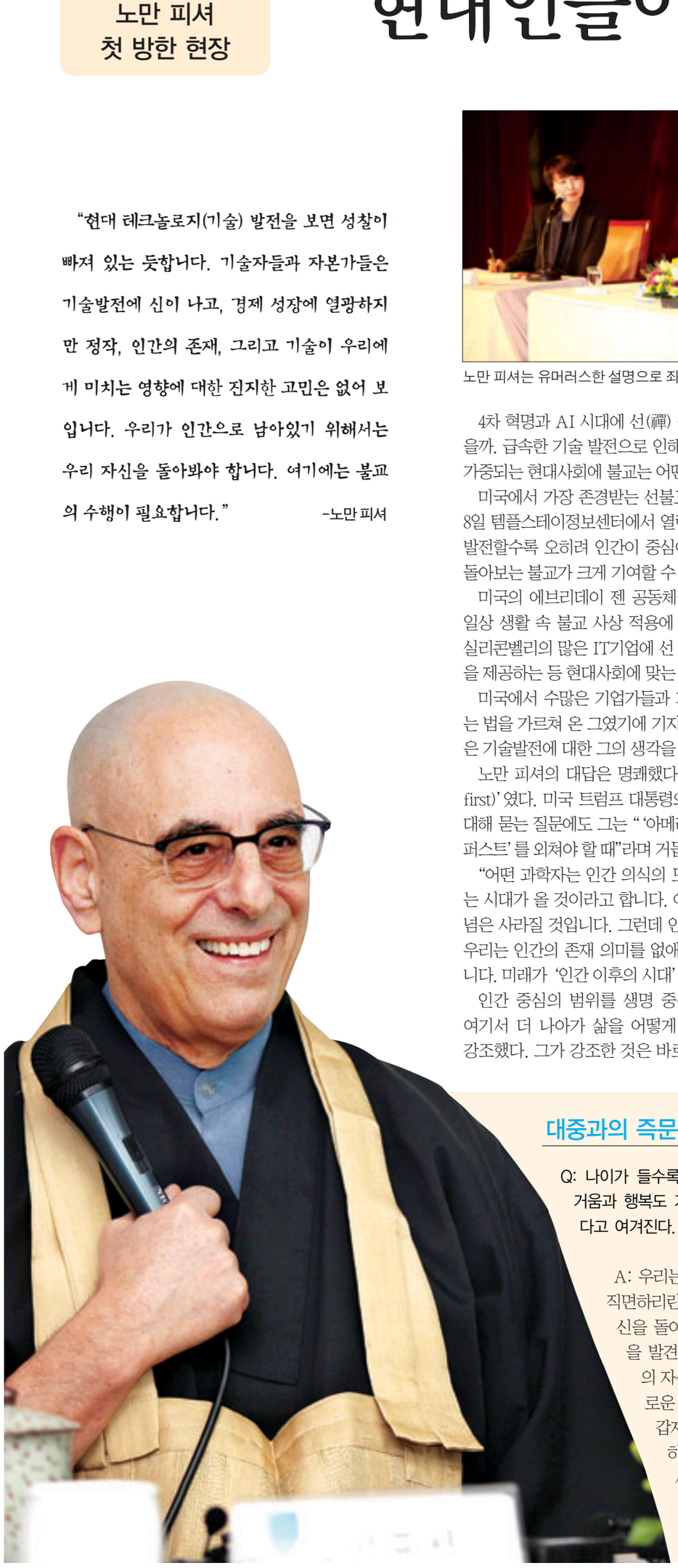
美선불교 지도자
노만 피셔
첫 방한 현장

"현대인들이여, 기억하세요. '휴먼 퍼스트!' "

"현대 테크놀로지(기술) 발전을 보면 성찰이 빠져 있는 듯합니다. 기술자들과 자본가들은 기술발전에 신이 나고, 경제 성장에 열광하지만 정작, 인간의 존재, 그리고 기술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남아있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기에는 불교의 수행이 필요합니다."
-노만 피셔



노만 피셔는 유머러스한 설명으로 좌중을 웃기며 강연을 이어갔다.


대중들은 동영상 촬영을 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전통공연장은 입추의 여지 없이 많은 대중들로 꽉 찼다.

4차 혁명과 AI 시대에 선(禪) 수행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인해 인간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는 현대사회에 불교는 어떤 답을 줄 수 있을까.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선불교 지도자인 노만 피셔는 3월 8일 템플스테이정보센터에서 열린 방한 첫 행사에서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인간이 중심이 돼야 하고, 여기에 자신을 돌아보는 불교가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에브리데이 젠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노만 피셔는 일상 생활 속 불교 사상 적용에 앞장서 왔다. 구글을 비롯한 실리콘벨리의 많은 IT기업에 선 사상을 적용한 명상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현대사회에 맞는 불교발전을 이끌고 있다.

미국에서 수많은 기업가들과 기술자들에게 내면을 수행하는 법을 가르쳐 온 그였기에 기자간담회에서는 4차 혁명과 같은 기술발전에 대한 그의 생각을 묻는 질문이 쏟아졌다.

노만 피셔의 대답은 명쾌했다. 바로 '휴먼 퍼스트(human first)' 였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에 대해 묻는 질문에도 그는 " '아메리카 퍼스트' 가 아니라 '휴먼 퍼스트' 를 외쳐야 할 때"라며 거듭 인간 중심을 강조했다.

"어떤 과학자는 인간 의식의 모든 것을 컴퓨터에 이식시키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면 '죽음' 의 개념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의 존재 의미를 없애는 기술에 대해 저항해야 합니다. 미래가 '인간 이후의 시대' 가 되지 않으려면 말이죠."

인간 중심의 범위를 생명 중심으로 확장한 노만 피셔는 여기서 더 나아가 삶을 어떻게 바꿀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강조한 것은 바로 성찰이었다.

그는 "수행할 때 우리는 온 신경을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의 에너지' 에 집중한다. 이 힘을 토대로 세상의 다른 존재들과도 연결될 수 있다"며 "이런 능력을 키운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에 휘쓸리고 공감과 이해력이 높아져 다른 사람과 더 잘 연결된다. 구글 등에서 이런 훈련을 하는 것도 새 아이디어가 이를 통한 팀워크에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갈등, 모두가 '가족' 이라 생각하면 풀린다

8일 저녁 진행된 대중과의 만남에서는 보다 한국 상황에 맞는 진단이 이어졌다. 자유로운 즉문즉답의 분위기에서 그는

기술발전, '인간 위해야' 주문
탄핵정국에 '근본은 한가족' 강조
보살행 통한 사회구성원 협력

한국의 탄핵정국에 대한 자신의 생각 등을 가감없이 밝혔다.

그는 "혼란 가운데에서도 인간이라는 하나의 큰 가족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처음이었으면 좋겠지만, 불행히도 역사를 통해 반복해 왔다"며 "사회의 큰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좋지 않고, 감정적으로 힘들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으로 서로에게 반응하고, 확대 재생산 된다"고 말했다.

"이런 시기에는 기본적인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가족으로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충동이 있고, 이런 일에 당혹하고 놀라고, 안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견해가 달라고 인간 누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음에 기반한다면 각자의 입장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서로 의견을 경청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상태로 나갈 수 있습니다."

노만 피셔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간의 토대를 잘 지키고 있는 한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헤쳐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선수행은 보살행"이라며 "보살행을 통해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하고 자신도 이로움을 얻는다. 우리 사회는 함께 해 나갈 때 보다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즉문즉답에 앞서 그는 대학에서 선불교에 대한 책을 접하면서 자신의 인생이 변화했음을 소개하기도 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 조동종 스즈키 순류(1904~1971) 선사와 공부하던 이를 따라 수행을 시작했고, 버클리 인근 선센터에서 공부하며 아내 캐시를 만나 함께 수행해왔음을 밝혔다.

한편, 노만 피셔는 서울 상도선원장 미산 스님과 해남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 권선아 스트리트젠 대표 등으로 구성된 모임인 '다르마 프렌즈' 의 초청으로 처음 방한했다. 그는 이날 강연을 시작으로 21일까지 13일간 대중과의 만남을 이어간다.

방한 일정을 주관한 상도선원장 미산 스님은 "한국의 큰 변화 국면에서 국민들이 불교 뿐만 아니라 삶의 가치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 것인지를 들어보길 바란다"며 "삶의 기준과 가치를 새롭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대중과의 즉문즉답

Q: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껴진다. 즐거움과 행복도 가식으로 느껴지고 인생도 곧 끝난다고 여겨진다.

A: 우리는 우리 몸이 점차 노쇠하고 죽음에 직면하리란 걸 잘 압니다. 우리는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면 스스로에 내재된 최고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늙음은 인생에서의 자신감을 줍니다. 노(老)는 삶의 경이로운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다고 갑자기 행복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삶의 대부분은 삶에 대한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직면하는 순간을 가지고 성찰해나가야 겠죠.

Q: 한국은 청년실업이 심각하다. 만약 당신이 청년실업자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A: 사회가 발전 일변도로 구성돼있고, 우리는 일련의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런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하게 됩니다. 만일 제가 실업 상태라면 즉각적으로 저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더 적게 소유하고 작은 공간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살 것입니다.

적은 돈을 가지고도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일하는 곳에서 달아나고, 너무 급속도로 변하는 곳에서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직업이 없다는 것은 꽤 좋은 것입니다.

제가 젊은 시인으로 살 때 가능한 한 직업을 갖지 않으려 했습니다. 한달 정도 일하고 나머지는 실업상태로 지내곤 했습니다. 매 끼니 보리를 먹었죠. 저에게는 많은 책을 읽을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차가 고장나면 스스로 고쳤고, 고칠 재간이 없으면 그냥 걸었습니다. 다시금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유용하게 바꿀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Q: 세상을 사랑하라는 말을 했는데, 악의 존재도 사랑해야 하는가?

A: 훨씬 힘들지만 악의 존재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 힘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는 대통령을 정말로 좋아하지 않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당신이 이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지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이는 미움 때문에 삶이 왜곡되고 내면에서 더 힘들어 집니다.

미래의 언젠가는 대통령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아주 아주 먼 미래라도 언젠가는 말이죠.(웃음)

불교학술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도서출판 운주사의 〈프라즈냐 총서〉



1 불교철학의 역사
연속과 불연속
D. J. 칼루파하나/김종욱 역/신국판양장/544쪽/25,000원

2 한국의 불교의례 I
상용의례를 중심으로
정각/신국판양장/460쪽/23,000원

3 밀교학 개론
밀교란 무엇인가
증석/신국판양장/286쪽/12,000원

4 법화경의 성립과 배경
인도문화와 대승불교
塚本啓祥/이정수 역/신국판양장/576쪽/27,000원

5 성철선사상
돈오돈수와 중도·영원에서 영원으로
도대현/신국판양장/448쪽/23,000원

6 인도불교사
그 사상사적 이해
정순일/신국판양장/726쪽/33,000원

7 주역선해 연구
불교사상과 유교사상의 융합
청화/신국판양장/510쪽/25,000원

8 율장의 승단분열 연구
역사와 종교의 변증법적 이해
자현/신국판양장/280쪽/15,000원

9 불성론 연구
도겐의 『정법안장』을 중심으로
최현민/신국판양장/368쪽/18,000원

10 불교의 마음챙김과 사상의학
불교와 의학의 만남
불교와 사상의학 연구회 편/신국판양장/416쪽/23,000원

11 청송의 선과 철학
선사상과 서양철학의 회통
소광희 외/신국판양장/312쪽/18,000원

12 불교미술사상사론
불교철학과 미술사의 통합적 인식
자현/신국판양장/304쪽/18,000원

13 천수경 연구
현행 『천수경』의 성립 및 구조에 대한 분석
정각/신국판양장/500쪽/25,000원

14 역경학 개론
불전佛典의 성립과 전승
최종남 외/신국판양장/454쪽/23,000원

15 현수 법장 연구
화엄교학의 대성자
계환/신국판양장/252쪽/15,000원

16 유식삼십송 풀이
유식불교란 무엇인가
후카우라 세이분 지/신국판양장/500쪽/25,000원

17 불교사회복지개론
불교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실천체계 및 현황
조보각 외/신국판양장/408쪽/20,000원

18 한국 고대 정토신앙 연구
『삼국유사』에 나타난 신라 정토신앙을 중심으로
현송/신국판양장/320쪽/17,000원

19 경봉 선사 연구
생애 및 사상, 수행과 결과를 중심으로
정도/신국판양장/304쪽/17,000원

20 화엄경의 문학성 연구
입법계품에 나타난 선재동자의 구도이행을 중심으로
도업/신국판양장/360쪽/18,000원

21 정토 수행관 연구
영명 연수의 사상과 수행을 중심으로
법상/신국판양장/524쪽/25,000원

22 정토불교의 역사와 사상
정토불교의 기원과 전개, 교리와 인물을 중심으로
현승/신국판양장/436쪽/23,000원

23 동산의 불교계 정화운동 연구
한국불교 정통성 회복을 중심으로
진관/신국판양장/242쪽/15,000원

24 한국불교 의례체계 연구
시식, 공양, 송주 의례를 중심으로
이성운/신국판양장/454쪽/23,000원

25 청송의 생애와 선철학
동서양의 철학적 사유에 가교를 놓다
소광희/신국판양장/212쪽/15,000원

26 불교세시풍속
기록으로 만나는 불교 세시풍속과 문화
오인/신국판양장/446쪽/23,000원

27 삼계교 사상 연구
신행의 사상과 실천, 신라불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법공/신국판양장/424쪽/23,000원

28 범망경보살계본위해
천태지자·운서주굉·영봉우익의 주석서들을 종합한 주해
이원정 편/목정배 역/신국판양장/556쪽/28,000원

29 심오한 중도의 새로운 문을 여는 지혜의 등불
중관철학, 귀류논증학파를 중심으로
게셰 텐진 남카/신국판양장/484쪽/24,000원

30 중국불교사상사
유불도 통섭을 통한 인도불교의 중국적 변용
김진무/신국판양장/496쪽/25,000원

31 숭산행원의 생애와 사상
한국 간화선의 대중화·세계화를 중심으로
최용운/신국판양장/292쪽/17,000원

32 불상점안의식 연구
불상점안의식의 역사와 사상, 작법절차를 중심으로
해시/신국판양장/488쪽/25,000원

33 불교사회사상의 이해
한국의 상황을 중심으로
이병욱/신국판양장/364쪽/18,000원

34 분황 원효의 생애와 사상
'일심(진여)의 신해성' 과 '일심지원(본각)의 결정성' 을 중심으로
고영섭/신국판양장/464쪽/2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전화 (02) 926-8361 ● 주문 (02) 3672-7181 ● 인터넷 서점: 붓다북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